

빠띠 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 공론장 결과 보고서

2022년 12월 24일

빠띠 캠페인즈팀



# 목차

|                                                               |           |
|---------------------------------------------------------------|-----------|
| <b>1. 공론장 기획</b>                                              | <b>2</b>  |
| 기획 주체                                                         | 2         |
| 시민주도 디지털 캠페인 플랫폼 ‘캠페인즈’                                       | 3         |
| 시민주도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필요 배경                                      | 4         |
| 시민주도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목표                                       | 4         |
|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공론장 기획의 취지       | 4         |
| 위기의 시대 공론장의 쓸모                                                | 6         |
|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실시간 공론장 개요       | 7         |
| <b>2. 일상의 공론장_발제문과 사전 토론</b>                                  | <b>8</b>  |
| [발제 1] 신유진_우린 무사히 30대 생일 축하할 수 있을까요: 살아남은 1990년대생이 목도한 참사들 12 |           |
| [발제2] 최성용_참사를 대하는 목격자의 태도                                     | 14        |
| [발제3] 김창인_참사 이후 정치, 우리는 왜 달라지지 못했을까                           | 18        |
| [발제4] 함대건_10. 29.참사의 현황 및 제도적 보완 방안                           | 23        |
| <b>3. 실시간 공론장_소모임 토의</b>                                      | <b>27</b> |
| 소모임 토론 내용                                                     | 28        |
| 소모임- 1조: 10.29 이태원 참사와 청년                                     | 28        |
| 소모임- 2조: 10.29 이태원 참사와 언어                                     | 31        |
| 소모임-3조: 10.29 이태원 참사와 정치                                      | 33        |
| 소모임-4조: 10.29 이태원 참사와 제도                                      | 36        |
| ★실시간 공론장_소모임 토의 전체 요약 및 연결                                    | 38        |
| <b>4. 캠페인즈에서의 토론: 요약과 연결</b>                                  | <b>43</b> |
| [발제 1] 신유진_우린 무사히 30대 생일 축하할 수 있을까요?: 살아남은 1990년대생이 목도한 참사들   |           |
| 댓글 토론                                                         | 43        |
| [발제2] 최성용_참사를 대하는 목격자의 태도 댓글 토론                               | 44        |
| [발제3] 김창인_참사 이후 정치, 우리는 왜 달라지지 못했을까 댓글 토론                     | 46        |
| [발제4] 함대건_10. 29.참사의 현황 및 제도적 보완 방안 댓글 토론                     | 46        |
| ★캠페인즈 댓글 토론, 요약과 연결                                           | 47        |
| <b>5. 나가며</b>                                                 | <b>50</b> |



# 1. 공론장 기획

## 기획 주체

작은 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기획하고, 청년참여연대가 협력하여 진행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빠띠는 일상에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확산시킵니다.

- 청년참여연대

-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이 원하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청년의 권리를 사회에 요구하며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동시에 청년들이 함께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론장 행사는 **Open Society Foundation**이 후원하였습니다.

## 시민주도 디지털 캠페인 플랫폼 ‘캠페인즈’

작은 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는 디지털 캠페인 플랫폼 ‘캠페인즈’(<https://campaigns.kr/>)를 토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은 ‘캠페인즈’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캠페인, 투표, 토론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즈**



### 가치

- 시민주도의 이슈화·공론화를 통한 ‘더 많은 민주주의’
- 사회 이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시민주도 캠페인
- 자유롭고 안전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시민주도 공론장

### 핵심기능

- 캠페인 -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캠페인 활동
- 투표 -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토론
- 토론 - 사회 이슈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토론
- 인물 - 촉구하기 캠페인에 의견을 내는 인물들을 확인
- 기사 -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을 모아보고 토론

### 캠페인즈의 가치와 핵심 기능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고 토론하고 싶을 때, 재미있고 일상적인 액션을 벌이고 싶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를 알리고 공론화 하고 싶을 때, 세상을 바꾸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할 때 활용 할 수 있는 ‘캠페인즈’는,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시민주도 민주주의 플랫폼입니다. ‘캠페인즈’에서는 누구나 의견을 모으거나 토론하고, 쉽게 캠페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이슈에 대해 함께 토론하여 공론을 모아내고, 공감하는 이슈에 대해 함께 행동하여 서로를 연결하고 연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시민주도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필요 배경

-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더욱 촉진되고 인식되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중요한 사회변화는 소위 디지털 전환입니다.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비대면 상황에서의 일과 활동,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디지털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 주변의 대다수 플랫폼들을 자본이 소유하고 있어 시민들이 주도성을 발휘하고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 시민주도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목표

-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곳에서, 시민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토의하여 공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 캠페인즈는 시민주도의 디지털 공론장과 디지털 캠페인을 확산함으로써 시민들이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여 더 많은,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시민주도 디지털 공론장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숙의로 대안을 도출하며 공론을 형성하는 디지털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캠페인즈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시민, 당사자, 전문가 등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과 효능감을 느끼며 성장하고,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캠페인즈에서는 투표-토론을 활용하여 사회 이슈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일상적으로 토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명하기, 촉구하기, 목소리 모으기 등 사회 이슈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어 직접행동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의와 캠페인은 자동으로 아카이빙 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공론장 기획의 취지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건내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였지만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및 대안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퇴진이 추모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모를 정치화 하지 말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된 정치체제는 10.29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반응 또한 양극화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다행하게도 이러한 반응과는 구별되어 유가족 당사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나누고 사회적 대화를 나누어, 참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만들어 가자는 흐름 또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빠띠에서 준비하는 작은 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준비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청년, 언어, 정치, 제도’라는 4가지 키워드로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작은 공론장’ 행사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사 당일, 빠띠의 황현숙(단디) 이사가 ‘10.29 이태원 참사’ 이슈에 관한 사회적 대화, 공론장의 필요에 대해 말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 위기의 시대, 공론장의 쓸모

황현숙(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이사, 공론장팀 리더)

우리에겐 지금

위로와 공감, 회복과 연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경제위기, 고령화, 저출생, 지역소멸 등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크고 복잡한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나름의 대안을 이야기하지만 선명한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지만 갈등만 부추길 뿐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뉴스를 보면 답답하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세상의 소식을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법은 어딘가에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어쩔 수 없어서 버티는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사회, 더 나은 사회가 무엇인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모일 때 세상의 여러 해법 중 더 나은 선택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별로라고 욕하고 외면하고 돌아서기보다 조금 더 나은 의견을 골라보고, 내 생각을 보태보고 이웃의 생각도 더 하며 조금 더 나은 점점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빠띠가 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공론장을 열고 있는 이유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저녁,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얼하고 있었나요?

할로윈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할로윈이 뭐라고, 이런 생각을 하며 평범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나요?

어느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이후, 우리 모두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정치인이나 언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형 사고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책임자들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지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을 언론이 보도할 때 무엇을 지켜야할지 무엇을 하면 안될지 뉴스를 보는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축제, 즐겁고 안전한 놀이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 어디에서 무엇을 했든, 이태원참사를 경험하고 바라보며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어난 사실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진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겁니다.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지,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사실이 정해주는게 아니라 그 일을 함께 기억할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앞서 우리는 각각의 생각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며 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더 나은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혐오와 편견, 배제의 언어가 아니라 위로와 공감 그리고 연대의 대화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일입니다.

##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실시간 공론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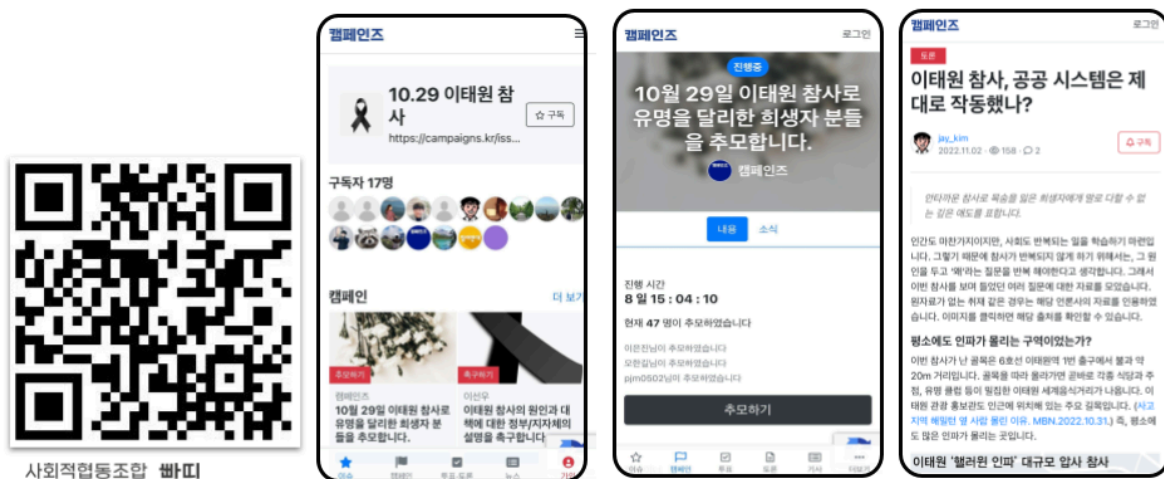
- 행사명: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 일시: 2022.12.20(화) 19:00~21:30
- 장소: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HALL80
- 주최 및 주관 :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 협업: 청년참여연대
- 후원: Open Society Foundation

## 2. 일상의 공론장\_발제문과 사전 토론

빠띠 캠페인즈팀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캠페인즈에 [‘10.29 이태원 참사’ 이슈](#)를 개설하여, 참사와 관련한 캠페인, 투표, 토론, 기사들은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추모와 애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들이 아카이빙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이슈

-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캠페인, 투표, 토론글, 기사 등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 오늘 공론장 행사와 관련된 캠페인, 투표, 토론에 직접 참여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이슈 페이지

## 캠페인즈 투표

### 10.29 참사와 이태원 참사,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by 오동운 캠페이너

- 완전 동일한 사례는 아니지만, 수리남이나 곡성 등 지역명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건 꽤나 사람들의 인식에 크게 남는 것 같아요. **이태원에 사시는 분들, 계속해서 장사를 해야하시는 분들을 고려하면 지역명을 떠올렸을 때 참사를 떠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 10·29 참사라 부른다고 해서 이태원이라는 장소를 떠올리지 않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번 사건을 잊지 않으려면 이태원 참사로 부르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참여 60표

- ✓ 이태원 참사로 불러야 합니다. (30표)
- ✓ 10.29 참사로 불러야 합니다. (19표)
- ✓ 잘 모르겠어요. (10표)
- ✓ 기타 (1표)

- 병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10.29참사라고 부르자는 입장에서는 병기하는 것이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논의 자체가 이번 참사를 더 오래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아직 고민되긴 하지만. 이태원 참사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10.29 참사와 이태원 참사,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투표

#### • 캠페인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분들을 추모합니다.](#)
-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설명을 촉구합니다.](#)

#### • 투표

- [우리 사회 속 ‘2차 가해’를 멈추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 [용산소방서장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 [이상민 장관 파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0·29 참사와 이태원 참사,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 •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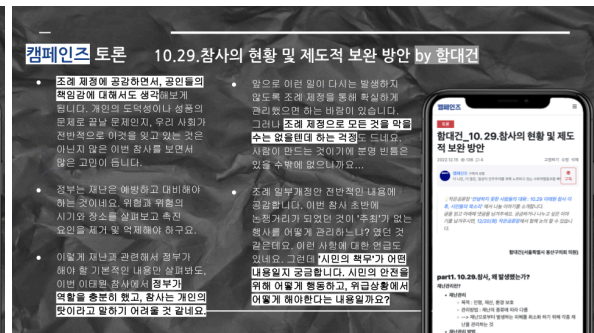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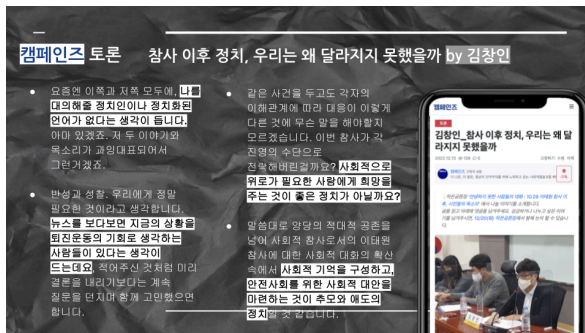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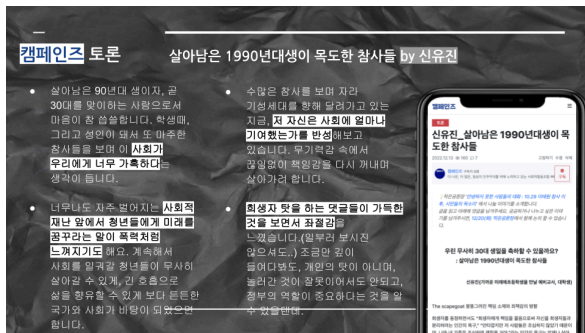
- 12.20 공론장 행사 발제문
  - [함대건 10. 29.참사의 현황 및 제도적 보완 방안](#)
  - [최성용 참사를 대하는 목격자의 태도](#)
  - [김창인 참사 이후 정치, 우리는 왜 달라지지 못했을까](#)
  - [신유진 살아남은 1990년대생이 목도한 참사들](#)
- 그 외
  - [\[이태원 참사\] 이태원과 세월호, 같은가 다른가?](#)
  - [내년 헬러원에 이태원에 간다는 사람... 어떻게 보시나요?](#)

- [\[이태원 참사\] 일상과 함께 가는 애도](#)
- [예술가의 애도 방식](#)
- [\[이태원 참사\] 고통을 느끼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가? - 참사의 명명법, 그리고 미디어의 보도 원칙](#)
- [대한민국 재난 타임라인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 [\[이태원 참사\] 상징과 언어가 없는 참사](#)
- [\[이태원 참사\] ‘상주’ 없는 애도 기간](#)
- [희생자 명단 보도, 필요한 이야기였을까](#)
- [우리에게 필요한 ‘추모의 정치화’란?: 퇴진은 추모가 아니다](#)
- [\[이태원 참사 추모\] 221119 녹사평역 3번 출구에 다녀왔습니다.\(그리고 시청역 7번 출구\)](#)
- [\[이태원 참사 추모\] 221117 삼각지역 1번 출구에 다녀왔습니다.](#)
- [“국가는 없었다”는 국가애도기간, 우리는 어떤 일주일을 보냈는가](#)
- [집단 트라우마를 대하는 공동체의 역할](#)
- [\[이태원 참사 추모\] 221105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다녀 왔습니다.](#)
- [이태원 10만 명 인파 수, 정말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일지 최근 7년의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 [이태원 참사, 공공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나?](#)

12월 20일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공론장 행사를 열기 전에, 캠페인즈의 투표-토론 페이지에 네 발제자의 발제문을 미리 업로드 하고 사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발제문을 행사 전이든 행사날이든, 행사 후에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일상적으로 볼 수 있고 토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의 공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론장 행사는 온라인으로 개최하든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든 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 압축적으로 모여 논의 한다는 점에서 ‘실시간 공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공론장 행사 참여자는 발제문을 사전적으로 읽고 오고, 행사 당일 사전에 이루어진 논의에 대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테이블 토의때 좀더 효과적으로 토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캠페인즈에 업로드 된 네 발제자의 발제문

아래는 발제문입니다. 사전 토론 댓글은 행사 참가자가 테이블 토론 후 작성한 댓글들과 함께 4장에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제 1] 신유진\_우린 무사히 30대 생일 축하할 수 있을까요?:**

### **살아남은 1990년대생이 목도한 참사들**

신유진(가까운 미래에 초등학생을 만날 예비교사, 대학생)

The scapegoat 뭉뚱그려진 책임 소재와 죄책감의 방향

희생자를 동정하면서도 “희생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자신을 희생자들과 분리하려는 인간의 욕구,” “안타깝지만 저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와 내 가족은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라는 인간의 욕구는 언제나 살아있다.

-재난의 세계사(원제: The Big Ones: How Natural Disasters Shaped Us)』(2018)

늦게까지 기사, 유튜브, 트윗을 봤다. ‘사망자 대부분 20 대 여성’, 개인이 다수한테 가감 없이 나르는 이미지들. 잠에 들 수 없었다. 죽음이라는 게 내 앞에 당도해 있는 무언가로 느껴졌다. 고의로 기록을 게을리했다. 망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이미지를 흐릿하게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었다.(상실 사진 참가 후기 박서연)

‘일탈하다 변을 당한 애들’ ‘흥청망청 유희를 즐기러 갔다가 죽은 애들’이라는 비난도 귀에 박힙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마다 느끼는 이 공포는 왜 공유되지 못하는 걸까요? 간명한 애도는 새로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산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간신히 아문 딱지는 자꾸 벗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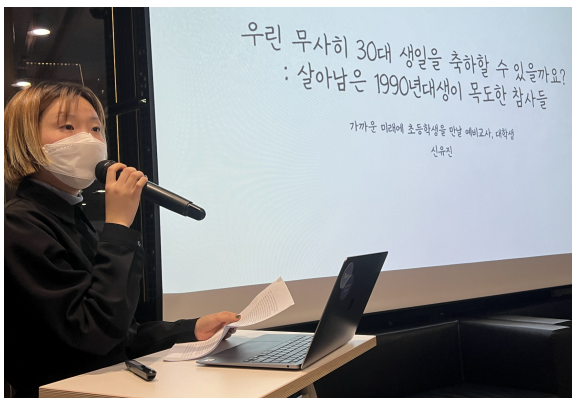
“팽목항에서 사고가 났는데, 모두 구조됐대. 참 다행이지”라던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두어 시간 만에 “배 안에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물이 차오르는데도 아직 못 나오고 있대”로 바뀌었던 열일곱의 그 날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선생님은 그 일이 마치 당신의 오보로 벌어진 것처럼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검은 리본에 '근조'를 지우고 책임자 없는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전국의 교육청에 노란 리본을 달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고, 끝까지 노란 리본을 달지 않은 한 대통령이 겹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이 죽었던 말이야?"라는 말과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들니까?"라는 말이 겹칩니다.

애도는 그 연결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까지 연결되었던 무수히 많은 삶과 노동과 죽음을 기리며 매일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할 때 애도가 곧 무서운 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나를 보살피는 방법이 되기도 할 것 같다. "그래, 애도는 매일 해야 하는 것이구나."(상실 사진 참가 후기 박서연)

그들을 평생 곁에 뒀야 할 존재들처럼 여기며, 소중한 사람들의 미래를 지키고 싶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을 끝까지 수호하면서요. 먼 미래에 친구가 될지도 모를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를 아픔 없이 맞이하고 싶다고, 포기하지 말아달라 당부하는 듯해서 마음이 저리면서도 그 연약한 약속에 관해 생각하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우린 무사히 30대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살아남은 1990년대생이 목도한 참사들"(신유진), 위 글의 PPT 자료는 이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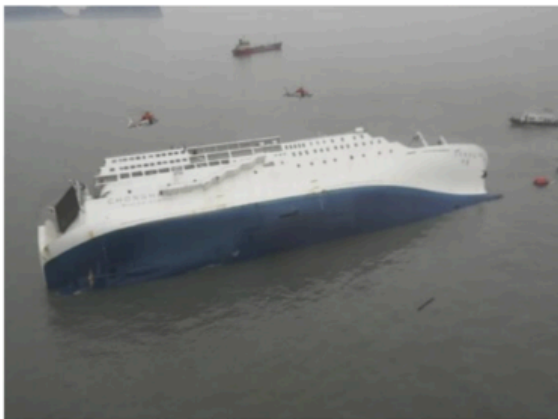


신유진 발제자와 최성용 발제자

## [발제2] 최성용\_참사를 대하는 목격자의 태도

최성용(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부설 냉전평화연구센터 연구원)

왜 “놀다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어떤 맥락에서, 어떤 감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우선은, 세 가지 정도의 맥락을 짚어보려 한다.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고 송은지 씨의 유품(오마이뉴스, ©이희훈)

### 1) 상징과 언어의 부재

세월호 참사는 가령 ‘침몰하는 배’나 ‘노란 리본’, “가만히 있어라”와 같이 풍부한 의미를 담은 상징과 언어들이 존재했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는 그러한 은유적인 상징이나 언어가 없어서, 여전히 너무 ‘비현실적’인 일처럼 다가온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이태원 참사를 가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언어는 ‘놀러가서 죽었다’이다. 그래서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 언론에서는 인파에 휘말리게 되면 개인이 어떡할 수 없는 재난의 상황이 된다는 의미에서, ‘군중난류’나 ‘군중 눈사태’ 같은 개념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 2) 오염된 언어와 냉소

“애도를 강요하지 마라”는 목소리는 사실 ‘국가애도기간’의 결과이다. 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은 다른 아닌 정부이지만, 정작 애도기간에 대한 반발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을 향하고 있다. 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을 말하는 이들은 ‘놀다가 죽었다’는 비난과 함께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보상금은 법 적으로 규정된 것이라 정부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다. 또한 국가애도기간 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과거 천안함 사태 때 선포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천 안함 침몰 이후 한 달이 지나고 인양이 마무리된 시점에 애도기간이 선포됐다. 반 면, 이번 애도기간은 10월 30일에 선포되었다. 10월 29일 밤 10시에 사고가 일어 났는데, 다음날 아직 피해자들의 사망/생존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애도 부터 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애도를 정치화하지 마라”는 말도 등장했다. 실제 “퇴진이 추모다” 같은 구호는 참사와 애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애도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치’가 특 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만 사고되고 환원되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정부와 야당의 정치 언어가 ‘애도’나 ‘정치’와 같은 말들을 오염시키고, 다른 애도의 말들을 봉쇄하거나 도구로 활용하면서 가능한 사회적 언어가 사라지고 있 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침묵과 냉소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놀다가 죽었다”는 그런 냉소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 3) 이태원과 혐오

‘놀다가’의 의미에는 이태원이 ‘위험’하고 ‘문란’한 곳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위험 한 줄 알면서도 ‘그런 곳’에 간 건 ‘개인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근현 대사를 관통하는 이태원의 역사와 관련된다. 이태원 일대는 과거에 큰 공동묘지가 있었던 지역으로, 지금도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종종 유해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일제 시대 용산에 일본군이 들어섰고, 해방 이후 미군이 용산에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기지촌’으로서 이태원의 역사가 시작됐다. 미군의 유흥문화와 미국산 제품들이 흘러나오는 곳이 됐고, 거기엔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군 위안부’의 역사가 서려 있다. 이태원은 각종 ‘미군 범죄’와 관련되어 ‘위험’한 곳으로 취급되어 왔고, 또한 이태원 은 트랜스젠더, 게이 등 성소수자들,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이 드나들고 살아가는 곳이기도 했다.

이렇게 한국근현대사의 여러 모습들이 새겨진 장소이지만, 그렇기에 이태원을 둘러싼 담론들은 늘 ‘혐오’를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특히 2020년 5월 이 태원에서의 코로나19의 확산은 ‘위험하고 문란한 이태원’이라는 기존의 담론을 반 복하는 것이었다. 2020년 10월 말, 2021년 10월 말, 매년 할러윈 시즌 때마다 코로 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이태원의 성소수자,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혐오 담론이 나타났다. 그러한 맥락의 연장선에 2022년 10월의 할러윈이 있는 것 이다. “놀다가 죽었다”며 사회적 애도를 가로막는 혐오 담론은 이런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 생존자와 목격자

생존자들의 호소하는 ‘미안함’은, 한편으로는 트라우마이자 아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생자들과의 강력한 ‘연결감’을 의미한다. 나는 그 연결감의 아픔을, 먼 거리에 있었던 목격자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격자들은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희생자와의 연결됨을 부정하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아니면 ‘너는 나다’라는 식으로 희생자와 자신을 과도하게 동일 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목격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그조차도 생존자보다는 희생자와 ‘거리’가 있다. 그 거리감 속에서 목격자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란 ‘나일 수도 있었다’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안합니다”라며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다 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는 그런 다짐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의 증거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참사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언제 다시 참사가 반복될지 모른다는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현재 생존자들을 향한 비난과 혐오의 말들이 가득 하다. 이미 한 생존자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10월 29일 밤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길고 느린 참사’를 겪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참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아직 우리 사회가 구출해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날 밤 생존자들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이제 생존자들, 유가족들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자들까지도) 구해내야 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 **[발제3] 김창인\_참사 이후 정치, 우리는 왜 달라지지 못했을까**

김창인(10.29 이태원참사 청년추모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청년정의당 대표)

### **국가는 없었다**

지난 12월 1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국정조사 특위의 간담회 자리에서 고 이지한씨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진실을 밝혀달라며 울부짖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여실히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앞집 개가 죽어도 위로를 하는데 하물며 나라 어버이로서 158명 자식들이 죽었는데…”라는 유가족의 이야기는 이태원 참사를 마주하는 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는 없었고, 참사 이후에도 추모와 애도의 과정에서 국가는 무책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바로 다음 날인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근조 리본을 착용했고, 축제 등 문화공연도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동시에 ‘참사’가 아니라 ‘사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10월 30일은 아직 구조 및 의료 업무가 진행 중이었고, 희생자 숫자조차 확정되지 않은 시기이다. 죽지도 않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이다. 정부에게 국가애도기간은 참사에 대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망각을 유인해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투영된 것에 불과했다.

참사 이후 정부가 유가족들을 대했던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속내를 더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참사 다음날 희생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병원의 응급실을 쫓아다녀야 했던 가족들의 이야기, 14시간 만에 나온 사체검안서 때문에 이들이 지나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이야기 등 상조회사만도 못한 정부의 행정절차로 인해 유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더욱 커져갔다. 더욱이 정부는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기 위한 만남 자체를 차단해 버렸다. 유가족들은 “우리가 범죄자도 아닌데 같은 유족 만나는 걸 왜 이리 은밀히 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참사 유족 간 접촉을 못 하게 하라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다”라며 토로했다. 윤석열 정부가 유가족들을 정치적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세월호와 이태원, 잘못된 정치는 왜 반복되는가

참사 직후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슬픔은 단순히 참사의 규모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8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참극을 다시 떠올렸다. 더욱이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혐오부터 국가행정의 무책임한 태도와 꼬리 자르기 행태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볼 수 있는 사회 면면은 세월호 참사 때보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2014년 4월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열흘이 조금 넘는 시기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임을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건 수습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두 달 뒤 내각 개편 과정에서 마땅한 후보자가 없자 총리 유임을 결정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사과를 하는 등 공식적 사과를 집요하게 피했다.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1주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진도 팽목항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좌절하지 말자”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보였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은 법적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규모 참사에 대해 정부와 여당 그 누구도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과 똑같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중 한 분은 자신이 ‘2찍’이라고 말씀하시며 통곡을 했다. 지난 대선에서 2번을 찍었다는 것이다. 자신도, 배우자도, 희생자인 아들도, 온 가족이 ‘2찍’이었는데,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 있냐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어쩌다 우리 정치가 이 지경이 됐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하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말 한 마디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모든 문제를 양당의 적대적 공존에 기반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 거대양당의 정치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태원에서 158명이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고 있을 때, 거대양당은 민생은 뒤로 한 채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특검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 참사 이후에도 전 국민이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갔느니 마느니, 캄보디아에서 영부인이 조명을 켜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진실공방을 하고 있었다. 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국가와 정치가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 진실에는 양당 모두 무책임했다. 이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행위가 정치의 전부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 ‘추모가 퇴진’이라는 두 번째 비극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비극으로만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두 번째 비극은 참사에 대응하는 정치와 언론, 시민사회의 모습이 세월호 당시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고 신고 시각에 대한 보도 이후, 국가 책임을 묻고 행정책임자 파면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라는 구호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퇴진’을 구호로 매주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라는 구호가 하나 더 추가된 것에 불과한 정치적 행위가 추모로 둔갑해있다. ‘퇴진이 추모다’라는 피켓들 사이에 간간히 보이는 ‘김건희 특검’ 피켓은, 한국정치의 파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정치와 언론, 시민사회 일부는 세월호 당시 사회적 경험을 과도하게 이태원 참사에 투영하고 있다.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국가부재에 대한 질문은 세월호 당시 담론을 그대로 가져온 셈이고, 국정조사-시민사회 연대체 구성-촛불집회-퇴진 구호 등장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프로세스가 단 기간에 완성된 것 또한 세월호에 대한 학습효과라 볼 수 있다.

문제는 대중들의 정서가 이와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치는 참사부터 퇴진까지 일직선으로 로드맵을 구상하고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대중들은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세월호를 통해 경험했다. 이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의 대화가 필요하고, 이를 사회적 담론으로 정립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대화와 토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너무나 일찍 생략(포기)해버렸다. 세월호 당시, 박근혜 퇴진 촛불 정세와는 다른 언어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퇴진은 추모가 아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여부 혹은 퇴진에 대한 동의여부와는 별개의 이야기다.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애도의 정치-추모의 정치화는 퇴진 구호와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국가책임을 묻는 것이 정권에 대한 책임 요구로 축소되거나 수렴될 수 없다. 정권교체만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순 없기 때문이다.

재난과 참사 이후, 사회는 ‘반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변해야 한다. 불평등이 재난으로 심화되지 않아야 하고, 참사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코로나

재난 속에 비대면-원격사회로 전환을 대안으로 내놓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정권교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대안들이다.

참사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에게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그 권리는 정치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추모와 애도에서 정치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추모와 애도가 정권에 대한 분노로만 귀결된다면, 안전 사회-대안 사회는 누가 만들 수 있는가?

## 추모에서 정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정국을 운영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왜 이 두 개인을 둘러싸고 우리 정치는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해야 하고, 시민사회 일부도 이 개인 간의 싸움을 정치투쟁으로 곡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 이분법적 정치의 구도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추모가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 서 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박한 일상에서 잠시나마 숨통을 틔우고자 해방의 공간을 찾아간 158명의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참사였다는 것을 전 국민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 일종의 ‘사회재계약’을 고민해야 한다.

참사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세대에게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다. 그 권리는 정치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며, 그래서 추모와 애도에서 정치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권에 책임을 묻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추모의 대화’를 사회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기성국가-기성정치-기성사회를 거부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산발적으로나마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는 이 모든 과정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대통령 퇴진을 넘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의 무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퇴진운동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참사를 마주하지 말자. 어떤 결론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추모하고 대화하고 연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나아가야 한다.

\*"참사 이후 정치, 우리는 왜 달라지지 못했을까"(김창인), 위 글의 PPT 자료는 이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인 발제자와 함대건 발제자

## **[발제4] 함대건\_10. 29.참사의 현황 및 제도적 보완 방안**

함대건(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 **part1. 10.29.참사, 왜 발생했는가?**

#### **재난관리란?**

- **재난관리**
  - 목적 : 인명, 재산, 환경 보호
  - 관리방법 :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다름
  - → 재난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종 재난을 관리하는 것
- **재난관리 방법**
  - 재난에 대한 예방
  -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활동
  - 대비, 대응, 복구 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
  -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정책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

#### **재난관리의 단계별 유형**

- **예방단계**
  - 위협,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결정
  -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활동
  - 실제로 발생하기 전 재난 촉진 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억제, 예방하는 활동
- **대비단계**
  - 재난에 대비해 필요한 비상계획 수립, 훈련 통해 재난대응조직의 능력을 강화하는 단계
  - 재난의 목표설정으로서의 대비단계(준비 및 계획)의 의미
  -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취해지는 사전준비 활동
- **대응단계**
  - 재난 발생 직전과 직후 재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취해지는 인명구조, 재산손실 경감, 긴급복구 활동을 총칭



- 실제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기관이 수행해야하는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적용하는 과정
- 복구단계
  - 재난이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지역 재난발생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할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 활동
  - 혼란상태 안정되고 응급 인명구조 및 재산보호 이후 재난 이전 상태 회복 위한 활동
  - 단기적 응급복구와 장기적 원상복구로 나뉨

## 재난관리의 형태

- 분산관리 형태
  - 재난 발생 유형에 따라 소관부처별 국가재난 관리 기능을 분산
  - 유형별 재난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에서 시작
  - 지진, 수해, 화재 등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
- 통합관리 형태
  - 분산관리의 문제점, 여러가지 대응상 문제 제기를 통해 미국에서 제시된 모델
  - 경고, 대피, 구호, 탐색, 구조, 구급, 사망자 처리 등은 개인과 집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활동이 취해져야하며 재난대응의 계획과 자원은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짐

## 재난관리의 형태별 장단점

- 분산관리 형태
  - 다수의 부처 및 기관이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
  - 부담을 분산시켜 특정 재난에 활동하는 방식
  - 부처 및 기관에 정보전달 다원화, 재난관리 위한 자원 마련의 중복 등
- 통합관리 형태
  - 소수의 부처 및 기관이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
  - 과도한 부담의 가능성 증가
  - 정보전달의 단일화, 자원 마련 및 배분의 간소화

## part2. 10.29.참사, 어떻게 대처해야 했는가?

1029.참사 대처의 문제점 : 국가, 경찰, 구청, 소방 차원에서(미완)

## part3. 10.29.참사 이후 우리는?

### 10.29.참사 이후 지방의회 조례발의안

- **서울시-서울특별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주최 및 주관자,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 명시
  - 서울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대책 세워야 함
  - 기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는 서울시 등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 주최 미상의 다중운집행사는 제외
  - 조례안 제5조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 명 이상, 행사 장소와 내용이 수시 변경될 수 있거나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 명 이상인 다중운집 행사의 경우, 서울시장이 서울시 경찰청장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계획은 행사 내용,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교통계획, 다중이용장소의 자체 안전 관리 인력 가동 상황 등 포함
  - 제6조에는 시장이 시경찰청장에게 보행자·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와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명시
  -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 제8조에는 통행의 금지 및 제한사항 규정
  -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특정시간, 구역, 방법을 지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추가

-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
- 주최·주관이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군중밀집 예측과 감지, 안전관리 대책 수립
- 시민의 책무 신설, 옥외행사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 도모
- 옥외행사 질서유지와 재난예방을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

\*"10.29.참사의 현황 및 제도적 보완사항"(함대건), 위 글의 PPT 자료는 이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실시간 공론장\_소모임 토의

참여자들은 발제자들의 발제와 캠페인즈에서의 토의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소모임 토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모든 참가자를 환대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토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토의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1조 : 10.29 이태원 참사와 청년**

- [질문1] (경험) 이번 참사에 대해 청년으로서,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을 공유해주세요.
- [질문2] (문제) 나눠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2조 : 10.29 이태원 참사와 언어**

- [질문1] (경험) 주변에서 이번 참사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 [질문2] (문제) 나눠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3조 : 10.29 이태원 참사와 정치**

- [질문1] (경험)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정치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 [질문2] (문제) 나눠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3] (대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4조 : 10.29 이태원 참사와 제도**

- [질문1] 이번 참사가 벌어진 원인과 관련해 어떤 제도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2] (문제) 나눠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3] (대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질문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참가자들이 각자 의견을 나눈 내용과 관련된 캠페인즈의 발제문 링크에 댓글로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들은 각 소모임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여 [빠띠 타운홀](#)을 활용하여 전체 참여자가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소모임들의 토의 내용의 속기와 요약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모임 토론

## 소모임 토론 내용

### 소모임- 1조: 10.29 이태원 참사와 청년

- [1] 이번 참사에 대해 청년으로서,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을 공유해주세요.
  - 뉴스를 보며 노출된 시간이 괴로웠다. 다음 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니 눈물이 났다. 이후로는 한국인들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다. 그중 한국 몇몇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물었다. 세월호 추모 공간, 소녀상 공간을 제안했고 분향소를 운영했다. 추모에 참여한 곳이 많이들 외국인이었다. 그렇게 베를린에서 지냈는데, 한국에 와보니 너무 조용했다.
  - 지금까지 화가 있어서 너무 힘들다. 이태원은 퀴어의 성지였는데. 친구들에게 디엠, 메시지가 와서 확인했다. 친구들에게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뉴스를 확인했는데 어마어마했다. 화가 난다. **우리의 공간을 파괴했다. 모이고 연대하는 공간인데.** 할로윈 축제를 관리하지 않았다. 뭐지? 싶다. 그 의문이 아직 있다. **말이 안 나오는데 다시 언어를 찾고 싶다.**

- 보자마자 느꼈던 것은 **답답함, 화, 안타까움,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꼈던 것은 **혐오**의 사회이다. 그중에서도 참사의 본질에서 벗어난 극단의 세력들이 대립하고 비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상을 보면서 혐오가 만연하다고 생각했다. ‘쿨썌’, ‘감성충’ 등의 단어가 나타나면서 더욱 혐오를 느낄 수 있었던 2022년의 사건일 것 같다. **세력을 떠나서 서로가 다했 사람을 찾고 있다는 생각과 너무 멀리 와버렸나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 세월호 당시 혐오 등이 생기는 걸 봤다. 회복과 상처가 덧나지 않게 기원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한 명은 울고 있는데, 한 명은 쿨하고. 이분법적인 느낌이 든다. **이분법은 신경계적으로 같이 하다가 갑자기 피하고 싶고 하는 상태에서 나온다.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몸적이고 신경계적이기도 하다.** 각종 논리를 갖다 붙이고 있는 **사회적 트라우마가 계속되는 느낌이 들었다.** 응집되지 않는, 고립되는 느낌. 세월호와도 비슷하면서 이번에는 더 외롭겠구나 싶었다. **유진님 발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야기 듣는 게 애도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았다.**
- [2] 나눠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분법적으로 되려 서로를 혐오하는, 주변과 같이 애도하기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 집단 상담과 같이 세대적인 공론장을 만들고 트라우마를 보듬는 그런 자리,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자리, 모여서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다.
  - 이번 이태원 참사를 봤을 때 느꼈던 것은 첫 번째로 **죽음에 금을 나누는 느낌**을 받았다. 누구나 죽으면 슬프지만 그걸 이번 참사 앞에서 왜 이야기할까 싶었다. 두 번째로 **타자화**가 많이 발생한 것 같다. 공동체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느낌이 들었다. 한국 사회 분위기와 유사하게 맞물리는 느낌이 드는데,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경쟁 구도가 작용하는 것 같다.** 연대를 하기 어렵고 효율, 성과, 개인의 이익과 피해만 몰두하게 된다.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사회적 신뢰가 파탄났다는** 생각도 든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참사에 대해 성소수자, 여성 혐오 살인과 같은 아주 다양한 죽음들을 떠올린다. 특별히 더 많은 참사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참사가 처음이고 누적, 반복,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니, 이 사회에 대한 신뢰가 파탄이 났다.

- 문제의 근본은 이전의 문제를 기반으로 개선되어야 했지만, 해결책이 시민들을 보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상처, 참사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이야기와 논의를 하게되는 것 같다. 죽음의 계급화도 계속 생각 난다. 천안함 사건을 잘 해결했다면 달랐을까 싶기도 하다.
- 합리성이 생각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 요소를 따져봤을 때. 옳고 그름, 합리성을 따지는 것 같다.
- 그 합리성 조차 무너진 것 같다. 합리성은 근대화의 산물인데.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은 것 같다.
- 다시 생각해보니 90년대생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선택한 방법은 외면이었다. 사회가 애도를 하게 만들지 않는다.** 애도에 대해서 좋은 글을 쓴 학자들도 있지만 공허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 여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회의감이 든다.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쿼어 커뮤니티의 경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에 중점을 둔다. **애도와 치유의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걸 없애거나, 일부러 지우려는 시도가 없으면 한다. 책임자들의 의도적인 접근과 (공간을) 지움으로써 독점하려는 행태가 없으면 한다. 불편하다고 지우지 않으면 좋겠다.
  - 참사를 볼 때. 여기서도 90년대생에 초점을 맞춰 올 수 밖에 없었다. 다른 세대를 대신해서 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았다. 세월호 때 수학여행 등 모든 게 무산되었던 시점 이후 박근혜 퇴진 시위에 참여를 했는데 의문이 들었다. 학교에 노란 리본을 다는 친구들은 애도의 의무감이 들어서라고 생각한다. **슬픔에 권리가 있는건가 싶었다.** 결국에는 애도의 방식을 잘 모르겠는데. 이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 혐오가 찰 때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애도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방식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리되지 않는 감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모두가 슬퍼해도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말해도 되고 안 말해도 되는데 **일단 만나자고 하는 주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리에서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용산구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트라우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게 항상 좋지만은 않다. 자신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오는 상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각자의 지역, 경험, 정체성이 다르니 세분화해서 더 많은 공간들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
  - 그런 의미에서 ‘퇴진이 추모다’라는 슬로건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 테이블에서 나눈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 10.29 이태원 참사와 '청년'

전체 제한 3 개

전체 인기

**청년** 2022.12.20

(대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10')  
 - 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참사의 공간을 애도의 공간, 안전한 공간으로 보전하고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부러 참사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 90년대생으로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우리의 경우 90년대생으로서이고.  
 - 애도의 방식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참사를 욕하고 혐오하는 움직임에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모든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다. (수정됨)

**청년** 2022.12.20

(문제) 나눠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5')  
 - 이분법적으로 서로를 혐오하고 같이 애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 죽음에 금을 나누고, 나만 괜찮으면 됐다고 생각하며 타자화 시키는 것이 문제이다. 이 원인은 개인주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개인의 손익을 따지게 되는 경쟁 구도 때문인 것 같다.  
 - 참사가 누적, 반복,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니 사회적 신뢰가 파탄났다.  
 - 모든 상처, 참사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초점을 벗어나서 다른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다. (수정됨)

**청년** 2022.12.20

(경험) 이번 참사에 대해 청년으로서,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을 공유해주세요.(10')  
 - 정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물으니 눈물이 났다.  
 - 이태원이라는 공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  
 - 혐오의 사회를 체감했다. 서로를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희극적인 마음이 컸다.  
 - 사회적 트라우마가 반복되고 있다고 느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애도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다. (수정됨)

## 소모임- 2조: 10.29 이태원 참사와 언어

- [1] 주변에서 이번 참사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 관심있게 뉴스를 봤을 때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 '사고'라고 부르는 등이 있어서 반발심이 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또 10.29 참사가 맞다고 하는걸 보면서 또 물음표가 들었다. **아픔에 대한 공유와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합의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고 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것이 크다고 본다.** 이태원은 일종의 **지명이라서 이태원을 부름으로 이미지와 연동**이 된다. 물론 부정적인 연상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태원참사라고 지금은 부르고 싶다. 결국 **공감**에 대한 생각이라고 한다.
  - 어렸을 때 길거리에 '잊지말자 6.25가 있었다' 지나가보니까 4.19, 5.18이 일어났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름 부르는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 처음에는 이태원참사라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국가가 내뱉는 모습을 보면서 **이태원이라는 것이 오히려 의미를 축소시키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사 자체가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10.29참사로 부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 이태원참사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10.29 이태원참사이거나. 이태원이라는 장소에 대한 명명을 빼고는 구체성이 빠지게 된다. 풍부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장소의 의미가 필요하다.

- [2] 나눠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잘해서 놀라운 나라였다. 국가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데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터지니까 선진국 이미지도 없고, 놀랐었다. 세대차이가 있어서 주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태원하고 상관 없다고 하더라.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놀지 못했던 것이 분출되었고, 정부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했던 것 같다.**
  -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공감되었다. 이태원은 항상 할로윈 행사가 있었다. 지금부터는 **대처를 만들어야하고, 이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앞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 젊은 층이 겪는 문화는 정해져 있다. SNS 등에 집중되기에 당연히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다.
  -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할로윈에 매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생각한다.** 매뉴얼의 부재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매뉴얼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공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을텐데 잘 작동했으면 좋겠다.**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혐오라는 단어를 필두로 정치가 교체되고 무기화되고 있다.** 세월호 때 건전한 시민사회가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잘 작동하지 않아 국민들이 시달린 것 같다.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통해 활성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이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해야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민의 힘을 키워야한다**는 것에 절대 공감한다. 무엇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공론장들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해 관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10.29만 보더라도 희생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고 4.19도 고등학생이 약자였다. 이러한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공론화하기조차 표현이 어려운 나라이다. 이번 참사를 보면서 **약자가 제도의 중심에 섰으면 좋겠다** 싶다. 유족들의 엄마의 울부짖음이 여성의 울부짖음으로 들렸다. 국가폭력을 강조하다보니 거대담론이 되어버리는데 **희생자는 소수이고, 곧 약자였다.**
  - 약자의 담론에서 **공감**을 얻는 담론으로 가면 어떨까. 나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굉장히 답답했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탈출구로 이태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 **비현실적인 상황들. 목도한 사람들. 공유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대로 외면하지 말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것.** 그래야 내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다. 그 토대는 **공감**에서 만들어지다보니 언어가 주는 힘이 엄청 클 것 같다. 한편으로는 시민의 역량 제도, 공감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단어 등에서 현실적인 것이 있을지 궁금하다.



불구하고 유가족분들이 먼저 무릎을 꿇을때 정치인들은 앉아 있었다.

- 이상민 장관 사퇴 건에 관련해서 유가족분들이 사퇴를 바라기때문에 사퇴를 해야한다는 부분이 감정적으로 느껴졌다.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기 보다, 방향을 찾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인데 강렬한 감정에 기반하는것이 옳은건가** 싶다.
- 감정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감정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도 정치가 해야할 일**이다. 모든걸 법적으로 해야한다면 정치인이 없어도 된다. **설득하고 조율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야하기 때문에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 비슷한 맥락으로 이태원참사에는 매커니즘이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입장에서 여당을 비판 해야하고,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양당에 속해있지 않은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하지 고민이 생길수밖에 없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재난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오랜기간동안 원인을 분석하고 토론하고 검토하고 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일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국회라는 여의도 정치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설 자리가 있는지 고민이 들게 된다.
- **[2] 나눠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세월호는 희생자들은 배를 보고 트라우마를 느낀다.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은 지옥철만 봐도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낌**. 10대 학생들도 지하철 타기를 무서워했다는 말을 한다. **이제는 내 차례다, 이번엔 내가 죽을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경우 출퇴근 지하철경우 넉넉한 시간에 하게 하던가 재택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생존자들이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것을 정치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제도적측면으로 정치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말씀하신 부분 중에 떠오르는 지점과 고민이 있음. 한가지는 밀집에 대한 이야기. 최성용 발제자가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을 했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이태원참사는 세월호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하기에 더 끔찍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배가 침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만, **압사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과정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것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언급하지 않으면 아무도 상상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어들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고민이 하나 있다.

- 두번째는 **신고 이후에 정부의 처리절차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축제나 문화재를 할때 경찰을 대규모로 투입해서 시민을 통제하는 대규모 경찰국가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이고 단순히 경찰이 부족해서 죽었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시민들 사이의 자율적 질서가 있는게 중요하다.** 참사 이후에 지하철에서 밀지말라고 하면 시민들이 긴장한다. 이제는 (이런) 자율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영상에서 어떤 여성분이 밀지말라고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시민들이 앞으로는 10명 중 1명은 질서유지를 위해 힘쓸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경찰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챙겨야 하는 정치 시스템, 지금 **사회를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태원참사 이후 평소에 후배들에게 헌신하고 배푸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10명 중 6명이 힘든 사람들을 살피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정치가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다음 참사를 예상하고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대체적 목소리를 내야한다.**
  - 참사 이후에 제대로된 조치가 없었다는게 가슴이 아프다. **정치라는 단어가 오염되어있다고** 생각한다.
  - **컨트롤 타워의 문제**라고 생각함. 911테러가 났을 때 그 첨단도시에서도 (대응책이) 잘 작동되지 않음. 책임지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가 컨트롤타워**이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도 지금 공무원처럼 본인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컨트롤 타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예산이나 장비를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것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예상을 못한다. 직급이 하나라도 더 높은 사람이 책임을 더 지고 **정치적 역할을 하면** 나았을 것 같다. 그런걸 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해도 부당하게 책임지거나 비판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 여당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행정과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치는 본인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여당은 사건방지를 해야하지만 사고가 터졌으면 **최대한 문제를 수습하고 무마를 해야하는데, 적절하게 사과하고 적절하게 무마하면 역으로 정치적인 책임이 지금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결국 하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여당에서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야당인 민주당도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각을 감안해서 정치적 입장을 내면 좋겠다. 이태원참사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역으로 형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거 같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 정말 고민이다. 대화하고 추모 행동 같이하고 분향소 설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신뢰를 만들고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것 만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그런 역할을 더 해내기 위해 해야할 것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딱따 타운홀 #191273

**테이블에서 나눈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 10.29 이태원 참사와 '정치'**

전체 제안 3개 전체 인기

**정치** 2022.12.20

[질문3] (대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컨트롤 타워가 역할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  
 자신의 역할만 할 수 밖에 없었던 공무원, 그들을 위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했다(대통령 장관들).  
 - 여당의 역할은 행정이고 제도이다.  
 결과적으로 여당은 빠르게 사과했어야 했고 야당은 메시지 내는 것에 있어서 수위 조절을 했으면 더 공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을 것 같다. (수정됨)

**정치** 2022.12.20

[질문2] (문제) 나눠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압사 상황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었고 더 트라우마가 극대화 되었던 것 같다.  
 - 최초 신고 이 후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문제  
 - 경찰국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 / 대규모 행사시에 경찰로만 통제하는 것이 좋을까? 경찰국가의 모습은 경계해야함.  
 - 필요하면 경찰을 당연히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율적인 질서가 필요.  
 - 국민을 안아줄 수 있는 이상적인 하나의 워딩이나 장면이 필요  
 /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함 (수정됨)

**정치** 2022.12.20

[질문1] (경험)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정치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 힘든 사람은 정치가 도와줘야지,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문제라고 생각함. 잘못된 정치인들은 사과하지 않고 유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움.  
 - 공동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거나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기대어 특정 정치인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쉽음.  
 - 그러나 오히려 시민의 감정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함. 상호가 공감하고 이해해야하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행정을 맡은 사람은 체계에 기대지 않고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있음.  
 - 여당은 참사가 이슈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야당은 공세적으로 몰아감.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대안이나 해결방안을 위한 공론은 어디에서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음. (수정됨)

## 소모임-4조: 10.29 이태원 참사와 제도

- [1] 이번 참사가 벌어진 원인과 관련해 어떤 제도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신입 경찰관들 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조례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역할도 크게 가지고 어떤 정당, 정치보다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선두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책임자들의 문제의식이 가장 크다. 예비 조치들이 있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앞으로도 계속 생기고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즐기는) 이때 구청장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들이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주변 상인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 맞기는 한데, 민간과 연결되어서 함께 대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 기존에 하던 상인은 봉을 들고 교통통제를 직접 했었다. 새로오신 분은 그러지 않았다. 어느 크리스마스 때 교대역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압사당할 일은 없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 **서울과 지방의 경각심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 **[2] 나눠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세월호 이후에 변한 것이 없다. **제도적인 부분도 인식도 변하지 않았다.** 교육받지 못한 20대 문제의식도 별로 없다. 세월호 이후에도 예비, 대응, 복구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보를 취합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들이 부족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디에 공유하고 전달해야할지 모르겠다. 참사에 대한 복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깐 지금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2차 가해자, 언어 등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발생한다.
- 초반 대처가 미흡했다.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씨피알 하는 것을 찍어서 올리는 것을 보고 트라우마가 온 사람들이 있다.**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심정지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대로 보여주어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은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므로 대안이 필요하다.
- **2차 가해는 어디까지인가? 사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유가족과 생존자, 목격자 이런 2차 가해 댓글보다 **정부의 말에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복구 단계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지 고민이 든다.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구청장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구청에 안전관리자와 안전재난직을 세우게 되어있지만, 안전재난직은 재난이나 소방에 대한 직무인데 서울시에 얼마 없고 거의 없는 수준이다.**
- 도로의 넓이가 좁았다.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겠지만, 도로 자체가 너무 좁았다고 생각이 든다. 경사가 있고 사람이 몰리는 공간이라면 도로를 넓게 설계해야 한다. **행사 자체가 서울에 몰려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 기업이 이익 추구를 하는데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다.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제도적인 부분이 더 문제.** 조례가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제도를 만드는 것도 정치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이후 달라진게 없다고 하는데 법적인 부분은 어느정도 생겼다. 책임 묻는 것 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사람을 바꿔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지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야한다.
- 상권이 활성화되었던 곳인데 코로나로 막히고 또 이번 행사로 또 막히게 되었다. 목격자인 상인의 트라우마에 관련된 치유와 대책이 필요하다.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빠띠 타운홀 #191273

**테이블에서 나는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 10.29 이태원 참사와 '제도'**

전체 제안 3 개 전체 인기

**제도** 2022.12.20

[질문3] (대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10)

- 결국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역할. 안전한 사회에 대한 정치와 시민의 대화가 지속되어야 함.
- 인프라 재정비: 서울과 인구 밀집지역의 도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참사의 복구와 치유: 지역 상인 분들에게 대한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이전 참사에서 배움: 세월호로부터 얼마나 배웠는가? 돌아보아야 한다. (수정됨)

**제도** 2022.12.20

[질문2] (문제) 나눠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5)

- 안전에 대한 제도와 인식이 여전히 미비하다. 세월호 이후에도 재난을 예비, 대응, 복구하는 메뉴얼이 자리잡지 못했다. 안전관리자 배치제도 등이 생겼지만 허울 뿐인 경우가 많다.
-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미비한 것 같다.
- 2차 가해: 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
- 이익 추구: 불법건축물 등 민간사업자들의 과도한 이익 추구가 참사를 키운 점이 있음. (수정됨)

**제도** 2022.12.20

[질문1] 이번 참사가 벌어진 원인과 관련해 어떤 제도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나요?(10)

- 시스템과 체계의 문제: 안전관리와 관련된 조례 등 메뉴얼이 없었다.
- 행정 공백의 문제: 경찰력 부족 등 국가와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프로세스 필요
- 예방과 대비의 문제: 민간과 국가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없었다.(이태원 상인과 구청의 사전 안전 협의 등) 있더라도 범위가 제한적.
- 지역 특성과 시민인식, 교육의 문제: 인구가 집중된 서울 시민들의 경우 경각심이 부족, 안전에 대한 교육도 미비 (수정됨)

★실시간 공론장\_소모임 토의 전체 요약 및 연결

● 소모임-1조: 10.29 이태원 참사와 청년

- 이번 참사에 대해 청년으로서, 개인적인 경험과 느낌을 공유해주세요.
  -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파괴
  - 혐오의 사회를 체감
  - 사회적 트라우마의 반복
  - 이야기를 나누며 애도할 수 있는 상황의 부재
-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분법적으로 서로를 혐오하고 같이 애도하지 못하는 것
- 죽음에 급을 나누고, 나만 괜찮으면 됐다고 생각하며 타자화 시키는 것
- 개인주의/자본주의 사회에서 손익을 따지게 되는 경쟁 구도가 원인
- 참사가 반복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사회적 신뢰의 파탄

###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참사의 공간을 애도의 공간, 안전한 공간으로 보전
-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
- 참사를 욕하고 혐오하는 움직임에 대응
-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 ● 소모임-2조: 10.29 이태원 참사와 언어

### ○ [1] 주변에서 이번 참사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 참사 자체가 공공재가 되기 위해서는 10.29참사로 불러야 함
- 이태원이라는 장소에 대한 명명을 빼고는 구체성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태원참사 혹은 10.29 이태원참사라고 불러야함
- (어떤 명칭으로 부르더라도) 아픔에 대한 공유와 공감에 있어야함

### ○ [2] 나눠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코로나 시기 동안 청년세대들이 장기간 놀지 못했던 것이 할로윈이라는 축제로 분출.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함
- 이태원에는 항상 할로윈 행사가 있었음. 매뉴얼의 유무와 관계 없이 공공 시스템이 잘 작동했어야 했음

###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더 많은 대화를 통한 공론장의 활성화
- 약자가 중심에 서는 제도
- 희생자들이 내가 희생자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상황 마련

## ● 소모임-3조: 10.29 이태원 참사와 정치

### ○ [1]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정치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 정치인들이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돕고 있음
    -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도 정치가 해야 할 일
  - **[2] 나눠주신 경험을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은 지옥철만 봐도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낌
    - 이태원참사는 세월호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하기에 더 끔찍함
    - 신고 이후에 정부의 처리절차가 더 심각함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정치적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대안적인 목소리를 내야함
    - 정치가 참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함
    - 책임을 지는 사람이 부당하게 비판 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 **소모임-4조: 10.29 이태원 참사와 제도**
- **[1] 이번 참사가 벌어진 원인과 관련해 어떤 제도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투입할 수 있는 경찰관 인력 부족
    -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인 프로세스
    - 책임자들의 문제의식
    -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기의식
  - **[2] 나눠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제도적 인식변화 부재
    - 복구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 부재
    - sns에서 참사 현장에 대한 무분별한 공유
    - 2차 가해에 대한 규정 및 사회의 대응
    - 안전관련 공직자 부족
    - 서울 중심의 행사
    - 조례의 사회적 기능 여부
  -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어떤 사회를 만들지 시민과 함께 논의
    - 지역 상인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 **소모임 토의의 연결**

- **참사의 당사자**
  - **당사자 주체**
    - 희생자, 생존자, 유가족, 목격자, 지역 상인, 청년, 여성, 소수자
    - 그리고 (함께 슬퍼하고 연대하는) 시민들
  - **당사자의 처지**
    - ‘놀다가 죽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등의 개인 탓, 폭력과 혐오, 편견과 배제, 슬픔, 무력감, 미안함, 2차 가해
- **참사에 대한 진단**
  - **참사의 원인**
    - 책임자들의 문제의식 부족
    - 대응 과정에서의 매뉴얼의 부재
    - 안전에 대한 불감과 제도적 프로세스의 부족
  - **사회적 참사, 사회적 재난**
    -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파괴
    - 2차 가해에 대한 규정 및 사회 대응의 부재
    - 사회적 트라우마의 반복
    - 사회적 신뢰의 파탄
    -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항상 있었고, 코로나 이후 분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매뉴얼 유무와 관계 없이 정부의 대처가 있어야 함
- **참사에 대한 언어의 형성과 사회적 기억**
  - **애도/추모/정치의 부재 혹은 오염**
    - 상징과 언어의 부재
  - **감정의 공유 → 미안함=연결감 → 연대**
  - **사회적 기억의 형성**
- **시민행동**
  - **추모와 애도**
    - 각자의 방식에 따른 애도
    - 당사자 중심의 대응
    - 혐오에 대한 대응
    - 참사 공간을 안전한 애도의 공간으로
  - **공론장 활성화**
    - 더 많은 대화를 통한 공론장의 활성화
- **정치와 제도**
  - **양극화 된 정치**

- 양당의 이분법적 적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공존
- 정부의 역할과 책임, (실질적) 대의

■ **좋은 정치의 필요**

- 반성과 성찰, 공감과 위로, 추모와 애도, 희망과 회복, 안전사회
- 연대, 사회적 대화, 시민들의 공론장

■ **제도적 보완의 필요**

- 사회적 참사/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안전관리(조례 개정)
- 참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대책 마련
- 안전 관련 대응 체계 마련
- 안전 관련 조례의 현실화
- +시민의 책무

## 4. 캠페인즈에서의 토론: 요약과 연결

빠뜨리는 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를 개최하기에 앞서 캠페인즈 투표-토론 페이지에 발제자들의 발제문을 미리 올려 댓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중 사전 토의 내용과 발제자의 발제로 관련 정보를 얻은 가운데 이루어진 서로간의 테이블 토의를 통해, 심화되고 정리된 자신의 제안을 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는 캠페인즈에서 댓글로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 전체를 정리한 것입니다.

### [발제 1] 신유진\_우린 무사히 30대 생일 축하할 수 있을까요?:

#### 살아남은 1990년대생이 목도한 참사들 댓글 토론

- “희생자 탓을 하는 댓글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봐도, 개인의 탓이 아니며, 놀러간 것이 잘못이어서도 안되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 “청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이 되어야 애도하고 싶은 만큼 애도할 수 있을까요? ... 계속 반복되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 “계속해서 반복되는 참사 속에서 청년의 무기력감이 커져갑니다. 부디 안전한 사회가 오기를, 애도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 수많은 참사를 보며 자라 기성세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저 자신은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반성해보고 있습니다. 무기력감 속에서 끊임없이 책임감을 다시 꺼내며 살아가려 합니다.”
- “적어주신 내용 중 애도는 연결을 인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의 일 말고 우리의 일로 참사를 애도할 수 있는 제반조건들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 “‘우리는 늙어 죽을 수 있을까?’라는 말이 90년대생의 슬로건이 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자주 벌어지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꾸라는 말이 폭력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계속해서 사회를 일궈갈 청년들이 무사히 살아갈 수 있게, 긴 호흡으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보다 든든한 국가와 사회가 바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살아남은 90년대 생이자, 곧 30대를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학생때,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또 마주한 참사들**을 보며 이 사회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추도하는 것 이상으로 그 **당시의 기억과 감정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공유. 그리고 그 이후 **지속적인 대화**가 사람들간의 **공감**을 만들고, 더욱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우리가 모두 아픔입니다. 애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뜻은 **모두가 모여서 많이 말하고 듣는 공론장과 집담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사회적 신뢰** 마련, **제도적 방안** 등 많은 문제점과 해결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덧붙여 이야기 하자면 **관점의 전환**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개개인이 불완전할 수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불완전한 사회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또한 개인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가에 **집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를 도출해내기 위해 ‘누가’를 찾는 것이라면, 그 본질적 목적을 간과하지 않고 **응보적 관점의 책임 전가**를 넘어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어떻게’를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애도가 자책 되거나, 어떤 힘으로 규합되지 않는 **일상 속 다양한 방식의 애도**에 공감합니다”
- “‘‘먼 미래에 친구가 될 수 있었을...’이 글귀가 계속 마음에 맴돌고 있습니다. 사회는 나만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이니 한 번이라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도 애도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 **[발제2] 최성용\_참사를 대하는 목격자의 태도 댓글 토론**

- “참사가 일어났을 때의 반응을 생각했을 때 ‘놀다가 죽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았는데... **불편하고 슬프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지 잘 몰랐었어요.”
- “사상자에 관한 뉴스를 보다가 악성댓글 때문에 댓글창을 닫아두었다는 마지막 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 “저는 본문 마지막의 ‘참사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참사**가 계속 일어나는데요. 그들에 대한 **비난과 혐오**의 말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상금만 주고 털어내야 할 존재로 보는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구해야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 “**‘놀다가 죽은건데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놀다가 죽을수도 있는 나라가 정상이냐’고 따져묻습니다. 애도기간 지정과 피해자 지원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차더라구요.**”
- “**‘참사 이후의 백래시인 ‘놀다 죽었다’는 반응과 말이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맥락 위에 놓여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 “**‘‘놀다가 죽었다’? 놀면 죽어도 괜찮은 건지라고 되묻고 싶네요. 누구에게나 쉽도 놀이도 필요한게 정상인데요. 헬러원이든 집회든 다른 이유든 사람들이 모일 때,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겠지요.**”
- “**‘‘추모를 정치화 하지마라’ vs ‘퇴진이 추모다’? 참사의 원인에 정부의 역할 수행 부분이 관련되면 정치적 차원의 접근은 필수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치는 기존 우리 정치의 이항대립으로 녹아들어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와 논의에 기초하여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의 책임을 묻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사회적 기억과 사회적 추모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정치일 것입니다.**”
- “**‘‘내가 될 수 있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말들이 몇 년 사이에 자주 보이는데요. 글에서 언급된 ‘연결감’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참사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사들을 목격한 사회가 지난 다짐을 보다 책임 있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감각을 일깨우고 그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혈오의 언어가 여과없이 쏟아지면서 세월호 이후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자기 성찰이 전무한 결과라고 봅니다. 오늘 빠띠가 작지만 큰 한 걸음을 뗀 거 같습니다.**”
-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 희생자분들은 기억하는 방법은 공감이라 생각합니다.**”
- “**‘언어들에 대한 논의와 고민의 과정이 담겨있을때 더욱 기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공론화가 자주 되고, 서로 공감하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인 집단 자기 성찰이 없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오늘 모임처럼 반 걸음씩이라도 내딛기를 기대해 봅니다**”
- “**‘참사에 대한 감정 공유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감합니다. 생존자, 전해들은 사람이 아픔을 함께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공간과 건강한 추모와 공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 518, 416, 1029의 희생자, 생존자, 목격자 **모두가 우리**이다. 어느 누구도 타자가 될 수 없다. **재난**은 한국인이란 살아 있는 한 **디폴트**다. 슬픈 국민에게 필요한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공론화** 직업이 시민을 깨웠으면 좋겠다.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 [발제3] 김창인 참사 이후 정치, 우리는 왜 달라지지 못했을까 댓글 토론

- “말씀대로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 사회적 참사로서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확산 속에서 사회적 기억을 구성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추모와 애도의 정치일 것 같습니다.”
- “같은 사건을 두고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응이 이렇게 다른 것에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참사가 각 진영의 수단으로 전략해버린걸까요? 사회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좋은 정치가 아닐까요? 거대양당이 서로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니, 한대 더 맞을까봐 서로 설불리 이 참사에 매진하지 못하는걸로 보입니다.”
- “반성과 성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지금의 상황을 퇴진운동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주신 것처럼 미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던지며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 “기성국가-기성정치-기성사회를 거부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산발적으로나마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는 이 모든 과정과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 이 말에 매우 공감합니다.”
- 나를 대의해줄 정치인이나 정치화된 언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있겠죠. 저 두 이야기와 목소리가 과잉대표되어서 그런거겠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저는 이태원참사 관련해서 정치와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발제4] 함대건 10. 29.참사의 현황 및 제도적 보완 방안 댓글 토론

-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확실하게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을텐데 하는 걱정도 드네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에 분명 빈틈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 “조례 일부개정안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합니다. 이번 참사 초반에 논쟁거리가 되었던 것이 ‘주최’가 없는 행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에 대한 언급도 있네요. 그런데 ‘시민의 책무’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위급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한다는 내용일까요?

- 조례 제정에 공감하면서, **공인들의 책임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개인의 도덕성이나 성품의 문제로 끝날 문제인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이번 참사를 보면서 많은 고민이 듭니다.
- 정부는 **재난은 예방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네요. **위협과 위험의 시기와 장소를 살펴보고 촉진 요인을 제거 및 억제해야** 하구요. **비상계획도 수립하고 대응조직도 준비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하구요. **대응과 복구**는 당연한 것이구요. 이렇게 재난과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봐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정부가 역할을 충분히 했고, 참사는 개인의 탓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놀다가 죽었다'며 참사를 개인 탓으로 돌리고, '참사를 정치화 하지 말라'며 책임을 묻거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려 하는 시도들에 잘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경사가 있거나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모일만한 도로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와 민간이 같이 책임**져야겠습니다.
- 참사에 있어 **제도적 미비**의 문제가 작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더 나은 정치가 필요하겠습니다.
-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후임에도 여러모로 제도가 부재하거나 부족했고, 그런 것들을 뒤늦게나마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제 그 자체만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제도의 역할과 책임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는 진정 사회적인 것이었는지 묻고, 그것들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공론장에서 말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 ★ 캠페인즈 댓글 토론, 요약과 연결

- **참사의 당사자**
  - **반복되는 참사**
    - (세월호 이후) 또 다시 마주한 참사
    - 반복되는 참사 속에서 청년의 무기력감
    - '우리는 늙어 죽을 수 있을까?'
    - '내가 될 수 있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
    - 재난은 디폴트
  - **우리 모두 당사자**
    - 불편함, 슬픔, 아픔
    - 비난과 혐오

- 희생자 탕을 하는 댓글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좌절감
  - 책임감
-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단
  - 참사의 원인
    - 개인의 탓이 아니며, 놀러간 것이 잘못일 수 없음
    - 놀다가 죽을수도 있는 나라가 정상이나
    - 누구에게나 험도 놀이도 필요한게 정상
  -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
    - 집단적인 자기 성찰이 전무한 결과
    - 사회적인 집단 자기 성찰이 없는 우리 사회
  - 사회적 참사, 사회적 재난
    - 정부의 역할이 중요
    - ‘참사가 끝난 게 아니다’ 계속되고 있다
  - 책임
    -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가에 집중하는 사회
- 시민행동
  - 지향하는 가치
    - 사회적 신뢰
    - 서로에 대한 공감
    - 연결감과 연대
    - 사회적인 반성과 성찰
    - 실천과 행동
    - 정부와 시민의 공적 책무
    -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
    -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 애도
    - 애도는 연결을 인지하는 것
    - 일상 속 다양한 방식의 애도
  - 사회적 기억
    - 그들의 일 말고 우리의 일
    - 참사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공유
    - 참사를 기억하는 방법.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방법은 공감
    - 표현하는 언어에 고민과 논의를 거칠 때 더욱 잘 기억할 수 있음

- 공론장 활성화
  - 지속적인 대화와 공감
  - 모두가 모여서 많이 말하고 듣는 공론장과 집담회
  -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공유 할 수 있는 공간들
  - 제도가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공론장
- 정치와 제도의 필요
  - 양극화 된 정치
    - 참사가 각 진영의 수단으로 전락
    - '추모를 정치화 하지마라' vs '퇴진이 추모다'?
      - 퇴진운동의 기회?
      -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는 이 모든 과정과 가능성을 차단
    - 나를 대의해줄 정치인이나 정치화된 언어가 없다
    - 정치는 기존 우리 정치의 이항대립으로 녹아들어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 좋은 정치의 필요
    - 사람들이 모일 때,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
    - 참사의 원인에 정부의 역할 수행 부분이 관련되면 정치적 차원의 접근은 필수적
    -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와 논의에 기초하여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의 책임을 묻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사회적 기억과 사회적 추모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정치
    -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 사회적 참사로서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확산 속에서 사회적 기억을 구성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추모와 애도의 정치
    - 사회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좋은 정치
  - 제도적 보완의 필요
    - 조례 제정 통해 확실하게 관리
    - '주최'가 없는 행사의 관리 체제 마련
    - 재난의 예방과 대비
      - 위협과 위험의 촉진 요인 제거 및 억제
      - 비상계획 수립, 대응조직 준비 및 역량 강화
    - 대응과 복구

## 5. 나가며

“‘10.29 이태원 참사’의 당사자는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생존자와 유가족, 그리고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더 넓게는 이를 지켜보게 함께 슬퍼하는 시민들 모두이기도 합니다. 좀더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청년이며, 여성이며, 소수자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당사자이고 다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적 참사로서의 ‘10.29 이태원 참사’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지만 각자의 차이들을 지니며 ‘사회적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다양한 측면에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공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참사의 당사자들은 ‘놀다가 죽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등 개인의 탓을 하는 반응들 속에서 폭력과 혐오, 편견과 배제, 2차 가해를 겪고 있고, 슬픔과 아픔, 미안함과 불편함,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 고통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후 또 다시 마주한 반복되는 참사에서 ‘우리는 늙어 죽을 수 있을까?’, ‘내가 될 수도 있었다’, ‘우연히 살아남았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재난이 디폴트’가 되는 ‘위험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태원으로 놀러나간 것이 죽어도 슬퍼 할 수 없는 잘못일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쉽다 놀이도 필요한게 정상일 것입니다. ‘놀다가 죽었다’는 이들에게 ‘놀다가 죽을수도 있는 나라가 정상이냐’고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안전에 대한 불감과 제도적인 프로세스의 부재, 대응 과정에서의 매뉴얼의 부재, 책임자들의 대처에서의 무능 등으로 인해 벌어지고 극대화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는 사회의 집단적인 자기 성찰이 없다는 것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사가 개인들의 탓이 아니고 정치사회적 대비 및 대응의 부재로 인해 벌어졌다는 점에서 10.29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참사, 재난입니다. 참사 이후에도 원인 규명과 책임 처벌의 부재, 2차 가해에 대한 규정 및 사회 대응의 부재 속에서 사회적 트라우마가 반복됩니다. 이는 사회적 신뢰의 파탄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참사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추모를 정치화 하지마라’는 진영과 ‘퇴진이 곧 추모’라는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 듯 합니다. 양극화 된 정치는 서로를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적대적 공존 상태’에서 참사를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사자의 목소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들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는 시민들을 실제로 대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참사의 원인 정부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다든 점에서 정치적 차원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추모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는 기존 정치의 이항대립으로 녹아들어 그것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좋은 정치는 반성과 성찰, 공감과 위로, 추모와 애도, 희망과 회복, 안전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시민들의 연대와 사회적 대화, 즉 시민들의 공론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 사회적 참사로서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확산 속에서 사회적 기억을 구성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추모와 애도의 정치”일 것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와 논의에 기초하여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의 책임을 묻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사회적 기억과 사회적 추모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정치”일 것입니다.

추모와 애도의 정치는 제도적 보완을 지향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법이나 조례 제정 및 재정비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응과 복구를 위한 체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비 해야 할 것입니다.

대응-복구,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최’가 없는 행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추모와 애도의 정치는 시민들이 추모와 애도를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행동을 벌여나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서로에 대한 공감 속에서 연결감과 연대의 관계를 맺고 사회적인 반성과 성찰을 지향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과 행동은 시민의 공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함께 사는 공동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며 사회적 신뢰를 형성해내는 일일 것입니다.

추모와 애도를 위한 시민행동은 일상속 각자의 다양한 방식에 따른 애도, 당사자 중심의 대응, 서로에 대한 연결과 연대의 형성, 혐오에 대한 대응, 안전한 애도의 공간의 형성, 더 많은 대화를 통한 공론장의 활성화의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바탕으로 애도·추모·정치의 부재 혹은 오염을 극복하며 10.29 이태원 참사를 잘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일 말고 우리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참사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공유하고, 당사자와 연대하는 시민들의 언어로 참사를 말하고 기억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형성되고,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힘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주도의 공론장’을 만들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공론장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대화와 공감의 이루어지는 공간일 것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많이 말하고 듣는 공론장,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공유 할 수 있는 공론장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사를 대비하고 대응 할 수 있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논의하여, 시민들이 위험사회가 아니라 안전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낼 수 있는 공론장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챕터에 작성한 위의 문장들은 캠페인즈에서의 시민들의 토론과,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공론장에서의 시민들의 토론에서의 의견들을 모아 재구성한 것입니다. 수많은 단어와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약간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10.29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은 응축된 하나의 결과인 셈입니다.

시민주도 공론장은 들리지 않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해줍니다.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열어나가는 공론장은 당장에는 제도적 변화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양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내적 가치일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토의하고 함께 의견을 모음으로써 공적인 삶에 참여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에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며, 이러한 수많은 과정들이 쌓여갈 때, 여러 사회문제들을 실제로 다루게 되는 힘을 얻고, 실질적인 제도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공론장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화: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의 목소리’ 행사와 캠페인즈에서 나눈 사전 토론,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한 이 보고서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 쌓는 돌탑의 이루는 하나의 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Parti

빠띠는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툴킷 플랫폼,, 커뮤니티를 만드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빠띠 카누 공론장 플랫폼,  
빠띠 믹스 의사결정 플랫폼 빠띠 타운홀,,  
캠페인 플랫폼 빠띠 캠페인즈 데이터 플랫폼,  
빠띠 데이터퍼블릭 등의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매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Homepage: <https://parti.coop>

Add: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2층

E-mail: [contact@parti.coop](mailto:contact@parti.coop)

빠띠의 더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거나,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 [빠띠 홈페이지 가입하기](#)  
주목할만한 시민들의 캠페인·투표·토론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Today 캠페인즈’ 구독하기](#)  
빠띠의 소식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뉴스레터 ‘빠담빠담’ 구독하기](#)  
빠띠의 든든한 후원회원, 빠띠존이 되어주세요! 📩 [빠띠 후원하기](#)

발행일 : 2022년 12월 24일

펴낸이 : 권오현(시스)

펴낸곳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공론장 기획 및 운영·보고서 작성 : 빠띠 캠페인즈팀 김연수(람시), 김재환(제이), 오동운(트리)

공론장 행사 퍼실리테이터 : 류수정, 김기회, 전찬영, 서준희, 허정민

공론장 행사 스태프 : 이연주, 은승채, 장유라

후원: Open Society Foundation